가미카와초에는 ‘이쿠노 광산료 마찻길’(현재의 ‘은의 마찻길’)이 100m에 걸쳐 남아있습니다. 1876년 건설된 이 도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머캐덤 공법이라는 기술을 사용한 산업고속도로였습니다. 벚나무로 둘러싸인 연못 주위를 따라 있으며, 2016년 도로의 일부가 발굴되어 지금도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. 경관도 19세기 후반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.